

독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읽나

“다 아는 말도 짤막한 이야기로 다시 들으니 새롭다!”
마음의 여유없고, 바쁜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

현대 직장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조화

일본계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 김민정(25) 씨는 “나처럼 평일, 저녁 7시 경에 약속을 할 수 있는 직장인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는 그의 친구들 대부분이 주중에는 저녁을 먹고 한 두 시간 야근을 하거나 심지어는 10시, 11시까지 회사에 머물며 남은 업무를 처리한다. 토, 일요일엔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어회화 학원 및 각종 스터디 모임을 찾아다니느라 바쁘다. 물론 성공과 자기 자신의 미래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의 애기지만 말이다.

“그러니 딱히 책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아마 지하철에서나 짬 짬이 보는 게 대부분이며, 걱정하고 책을 보기는 힘들지요.”(김민정)

온라인 게임업체에 근무하는 신성석(34) 씨도 바쁜 건 마찬가지. 그러나 신씨는 물리적 시간도 시간이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 책을 안보는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텔레비전 시청 시간만 줄여도 가벼운 책 한 권쯤은 금세 읽을 수 있지 않냐는 의미다. 실제로 그는 얼마 전 우화형 자기계발서로 알려진 《배려》를 2, 3시간 만에 가볍게 다 읽었다며 이 정도 책은 어떤 직장 인이라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굉장히 재밌게, 금세 읽었어요. 그 저자분이 쓴 저작도 봤고 인터넷에서 베껴뒀기라는 칼럼도 꾸준히 봐왔는데 이번 책은 형식면에서 굉장히 달리졌더라고요. 직장생활하면서 다른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가정생활에선 어떤 마음기집이 필요하진 등을 알려주면서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책이었죠.”(신성석)

짬 내 읽기 좋은 짤막한 이야기 구조, '스토리텔링' 위주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직장인들. 끝까지 다 읽었건, 읽지 않았건 그들이 한두 권 이상 구입해 둔 우화형 책에는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심리 상태를 잘 포착한 무언가가 있

다. 김민정 씨는 일단 짤막짤막한 엮편소설형 이야기를 모았기 때문에 잠깐 짬을 내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을 손꼽았다. 장편소설이나 경영이론서라면 연속성 있는 독서가 필요하지만 한 주제를 짤막하면서도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우화형 자기계발서는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텍스트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편하죠. 《마시멜로 이야기》같은 책들 보면 읽다가 중간에 쉬어도 전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지하철 이동중에 혹은 점심시간 잠시 짬을 내서 읽기 참 좋아요.”(김민정)

신씨 생각도 김씨와 비슷했다. 신씨는 우화형 책들의 장점을 텍스트 접근의 용이성에서 찾았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즐겨 보는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가 딱딱한 서술로 돼 있어 공부한다는 느낌을 준다면 픽션을 가미한 우화형 자기계발서는 소설 읽는



지하철 이동중,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우화형 책을 읽는다는 김민정 씨.

재미를 준다. 또한 주인공에게 자기 자신을 대입해보도록 유도한다는 매력도 무시할 수 없다. 최신 이론이나 사례를 소개하는데 직접적인 서술을 지양하고 소위 '이야기성'을 극대화 했다는 점에서 이런 책들은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다 아는 얘기’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묘미

“그렇지만 반대로 부담이 없다는 게 오히려 단점일 수 있죠. 경제경영책이나 자기계발은 부량이 적어도 들어간 내용이 많은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나오는 우화형 자기계발서들은 부량이 적거든요. 너무 가볍고 크게 건질 거리가 없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죠.”(신성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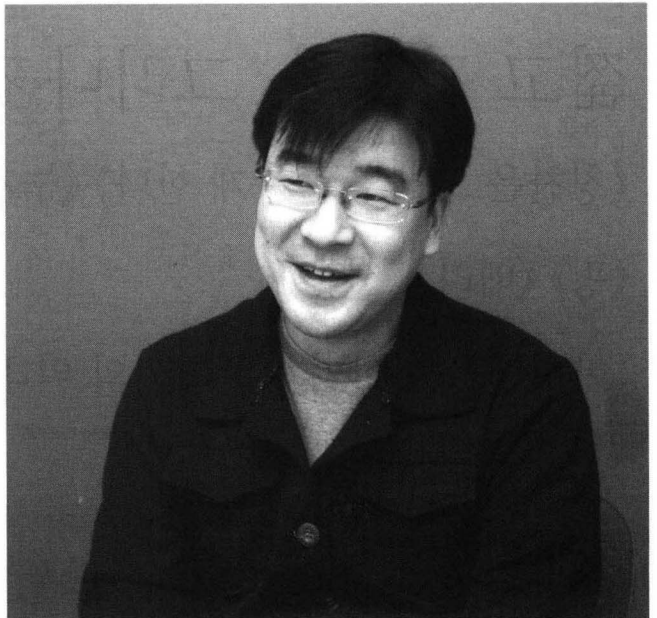
한편 우화형 자기계발서의 이야기가 우리가 익히 아는 뻔한 스토리 아니냐는 생각도 안할 순 없다. 김민정 씨는 일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우화형 책을 구입했던 경험을 말하면서 이 책들이 새로운 정보나 교훈을 제공하기보단 익히 아는 사실들을 반추하는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전에 우화형 책 중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한 권을 구입하고 크게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내가 다 아는 얘인데 뭘 이런 걸 정리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팩트를 전달하기 보다는 사실 정서적으로 깨달음을 주고 현실의 힘든 부분에 위안을 주거나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효과가 큰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텍스트 부량에 비해서 책값이 비싸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김민정)

그렇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다 아는 얘기임을 알면서도 이런 책들을 꾸준히 사 읽는다. 알고 있음에도 살다보면 망각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김민정 씨는 “책을 안 읽으면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난다”며 이런 책을 통해서 “맞다! 이런 게 있었지!”라는 말을 자주 해보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신성석 씨 역시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걸 실천에까지 옮기기는 힘들다”며 이런 책들을 통해 실천하는 의지를 키워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텍스트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우화형 책의 장점을 말하는 두 독자.



얼마 전 《배려》를 재미있게 읽었다는 독자 신성석 씨.

당장의 이득보다 두고두고 사회생활에 유익

결과적으로 우화형 자기계발서는 당장의 직접적인 효과나 정보 습득과는 거리가 먼 텍스트다. 두 독자 모두 바쁘게 살아가며 직장 내 인간관계, 성공에 대한 욕구들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되새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서 우화형 책의 가치를 손꼽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실생활에 혹은 우리 삶의 계발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김민정 씨는 “이것도 이론에 입각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하긴 힘든 부분이 있다”며 주제로 보면 다 맞는 얘기지만 이걸 실생활에 대입하고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보기도 그래요. 다만 읽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읽어둔 것들이 누적이 돼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을 가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됩니다.”(신성석)

그러나 어쨌건 우화형 책들의 약진 현상은 독서율이 낮은 젊은층 직장인들에게 책 볼 기회를 그나마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김민정 씨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하철에서 읽는 책들을 보면 어학, 실용서, 만화책 아니면 거의가 우화형 책일 것 같다”면서 “독서와 점점 멀어지는 요즘 사람들에게 잠깐이라도 읽기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미 있는 텍스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런 책들이 대다수 번역서인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앞으로 내용도 형식도 새로운 우리식 우화형 자기계발서가 꾸준히 등장해주시기를 기대했다. **한**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